

한국화 매력 '동질성전 무주초대전'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칠연미술관에서 내달 28일까지 작가 20명 참여 개최

2026 동질성전 무주초대전이 오는 6월 28일까지 무주군 안성면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칠연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서울 중심 미술계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미술의 독자성과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1991년 대전에서 시작된 '한국화 동질성전'의 취지를 이어가는 특별 전시로 지역 간, 작가 간 예술적 연대에 초점을 맞췄다. 전시에는 김민석과 강구철, 김정옥, 김종기, 박노숙, 박은미, 변슬희, 심선영, 유호순, 윤광빈, 이계걸, 이민구, 이연옥, 이정원, 이종필, 정명희, 홍춘기, 한아름, 홍옥기, 황현미 등 대전 지역 작가 20명이 참여했다. 전시 작품은 '여정'과 '일선', '세월의 흔적' 등 다양한 시각과 기법으로 완성된 한국화 20점으로 구성됐다. 관람객들은 작품을 통해 작가별 개성과 한국화 특유의 깊은 미감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전시 기간 동안 휴관 없이 무료로 운영된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나운채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대표는 "동질성전은 도시 중심 문화에



'2026 동질성전 무주초대전'이 오는 6월 28일까지 무주군 안성면 무주예술창작스튜디오 칠연미술관에서 열린다.

술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한국 미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번 전시가 무주군민과 관람객들에게 한국

화의 매력을 알리고 한국화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손홍기 기자

예술인 전용 공유공간 '예가람 라운지'

남원시, 지역 예술인 창작·전시·교류 활성화 지원

남원시는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 전용 공유공간인 '예가람 라운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예가람 방문자센터 1층에 마련된 '예가람 라운지'는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이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시는 이곳을 회의 및 간담회

장소로 활용해 지역 예술인 간의 창작·전시·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용 대상은 예술활동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지역 예술인으로, 이용료는 무료이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휴관한다. 다만 내부 운영 상



황에 따라 이용 시간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예술회관 상주단체 콘사노체임버오케스트라, 6월 5일 공연

부안군은 부안예술회관 상주단체 콘사노체임버오케스트라가 2026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돼 공연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부안'을 오는 6월 5일 오후 7시 30분 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선보인다고 밝혔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은 지역 공연예술단체와 공연장이 협력해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공연은 지휘자 유수영과 콘서트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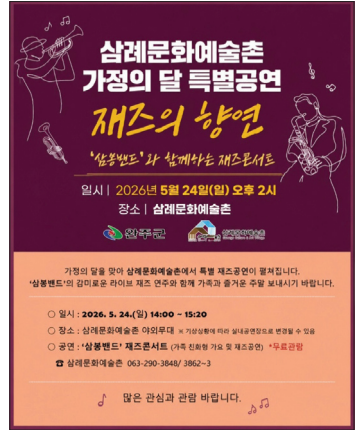
변자연이 함께하며 클래식과 한국 전통음악의 조화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전통예술원 타무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 Mozart: Violin Concerto No.3 In G Major K.216 1st Allegro (협연 박은수), '도라지', '아리랑 랩소디', '고향의 봄', '아름다운 나라' 등 총 7개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선착순 입장으로 운영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가정의 달' 주말 문화 프로그램 풍성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 감정 공감 북토크·라이브 재즈 공연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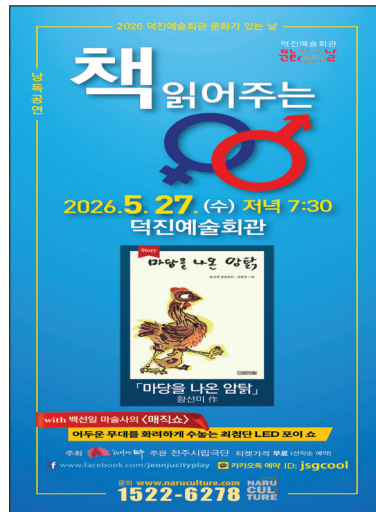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과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오는 23일 오후 2시에는 제1전시관 기획전시 '꿈을 그리는 소년 밥장'과 연계한 '작가 도슨트 및 북토크'가 열린다. 완주군 명예군민 밥장 작가가 직접 진행을 맡아 전시 도슨트에 이어 성인을 대상으로 작가 신간 그래픽 에세이 <외롭잖아>에 관한 깊이 있는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24일 오후 2시에는 야외무대에서 '가정의 달 맞이 재즈 공연'이 펼쳐진다. 완주군 기반의 '삼봉밴드'가 참여해 색소폰, 기타, 보컬 등 라이브 연주를 선보일 예정으로, 예술촌을 찾는 방문객 누구나 감미로운 가요와 재즈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이번 주말 동안 예술촌을 찾는 어린 이들을 위한 풍선아트 이벤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서진순 문화역사과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방문객들이 예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선보여 '스테이 삼례'가 머무는 명품 문화관광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작가 도슨트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완주=염재복 기자



북토크는 사전 및 현장 접수를 통해 선착순 30명 내외로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삼례문화예술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삼례문화예술촌은 매주 화~일요일(10시~18시) 운영되며, 현재 미디어아트 상영(제2전시관), 정인수 작가 판화 전시(제3전시관), 천철석 소품장전 및 목공체험(제4전시관) 등이 진행 중이다.

전주시립극단, '책 읽어주는 남녀' 27일 공연

전주시립극단은 오는 27일 덕진예술회관에서 5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낭독극 '책 읽어주는 남녀 - 마당을 나온 암탉'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 등 가족 단위 관객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고, 시민 누구나 쉽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립극단은 이번 공연에서 동화책과 애니메이션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마당을 나온 암탉'을 낭독극 형식으로 재구성해 선보인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암탉 '일찍'과 청동오리 '초록'의 꿈과 자유를 향한 용감한 도전을 배우들의 생동감 있는 낭독과 연기로 만나볼 수 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의미를 따뜻하게 담아낸 작품으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공연에서는 특별출연으로 백선일 미술사가 참여해 LED 퍼포먼스를 활용한 참여형 매직쇼도 함께 선보인다. 백선일 미술사는 어린이 관객들이 직접 참여하며 즐길 수 있는 유쾌한 무대로 공연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한편, 이번 '책 읽어주는 남녀' 공연은 문화가 있는 날 공연으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입장권은 나무랄처 누리집 또는 전화(1522-6278)로 예매할 수 있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